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직장훈련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24일 3층 회의실에서 직장훈련을 실시했다.

매달 실시하는 직장훈련이지만 5월중 직장훈련은 직원들의 비렘, 하고자 하는 말 등을 메모지에 적어서 소통나무에 붙이는 형식으로 상위 계급자와 하위 계급자 간, 각 과와 안전센터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나무를 통해 직원의 목소리를 청취 반영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되는 시간이었다.

고창군 소방행정과장은 "소통나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 및 일하고 싶은 직장 더 나아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해경, 가력항 선저폐수 수거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선저폐수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지난 23일 부안군 가력항에서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를 비롯하여 폐유 등을 수거했다.

선저폐수 수거에는 부안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참여해 선저폐수와 방치된 폐유 등 약 1톤을 수거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한차례씩 관내 주요항·포구에서 선저폐수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자발적인 처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앞으로도 선저폐수 수거의 날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해양환경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어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서 모양지구대,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캠페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가 관내 마을회관, 모정등 방문해 영농철 어르신들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교통법규준수 의식 확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특히 농어촌 등 이륜차 운전자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노인대상 안전차 미착용 시 사망률이 차용 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과 올바른 안전차 착용과 타석매기기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시 중상률이 4배이상 감소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모양지구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활동을 펼쳐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2017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고창군, 도시브랜드경영부문 수상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 브랜드 가치 인정 받아

고창군이 2017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24일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7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에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는 세심한 노력으로 지속 성장과

미래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굴·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도시브랜드경영부문은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고창군의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한국인의 본향 고창'이라는 슬로건에 담아 △풍요로운 명품 고창 △맛과 멋,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창 △정중한 자연 생태환경 속 정겨움이 가득한 고창으로 한국인이자면 누구나 고창에서 고향의 품을 느끼고 꼭 와서 살고 싶은 최고의 지역임을 함축적으로 표현

한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우정 군수는 "친환경 시장의 선점이 고창군의 미래발전과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본향 고창'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맞는 핵심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복 받은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잘 지키면서 이 가치를 관광자원화해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루고 명실상부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명품 고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농협 이호빈 과장  
훈훈한 봉사정신 '귀감'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 요즘 농촌에서 일손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일손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부안농협 이호빈 과장이다(사진)가 그 주인공.

지난 95년 우석대를 졸업한 후 부안농협에 첫발을 내 디딘 이과장은 매년 영농철에 휴일을 반납하고 관내의 부녀농 노령농 불의에 사고로 인한 농가, 인력이 필요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양파, 마늘, 오디수확, 모 때우기, 사과 배 가지 따우기 등 조합원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이과장은 관내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아 집안을 정

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품 정돈은 물론 주위의 오물과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줘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또 농어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시방방 역할을 하며 농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장소로 농협에서는 함께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백미20kg 1포석을 전달하고 겨울철에는 김장김치 20리터 1통씩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와 함께 이과장은 농촌에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관내 농어민을 위해 의료봉사 진료를 하여 의료서비스제공을 하고 있고 매년 1주일씩 한방 무료진료와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봉사를 펼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실내체육관, 보수·보강 사업 추진

7억9000만원 투입 외관 경관 개선 체육관 리모델링... 10월 마무리

정읍시민들로부터 오래도록 실내체육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정읍 실내체육관이 오는 10월 말이면 새롭게 탈바꿈된다.

시는 24일 "지나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7000만원에 시비 5억5300만원을 더한 총 7억9000만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 C로 판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관 경관 개선으로 체육관 전면부를 리모델링(remodelling)한다.

또 체육관 내부의 노후 마감재 교체와 함께 내부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리 11월 중순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연지붕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은 연면적 2518㎡의 지상 2층 건물이다. 1984년 준공된 33년이 지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그간 건물이 오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체육관 주요시설

에 균열 등이 발생함에 보수·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내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교육지원청-자치단체 한마음워크숍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시는 지난 23일 '교육지원청-자치단체 한마음워크숍'을 열어 정읍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협력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과장과 정읍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 양 기관의 정읍교육행정실무위원 및 교육협력 관련 장학사 관계

공무원 등 41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시는 2016년부터 4회에 걸쳐 정읍 학교-마을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정읍지역의 교육 자원이 학교의 교육과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읍의 교육유관 기관을 통한 학교 교육협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된 한마음워크숍에서 양 기관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례 탐방과 관계 공무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하여 지역교육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자치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계화면, 영농철 맞춤형 민원발급서비스

부안군 계화면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민원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계화면의 민원서비스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영농으로 바쁜 면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민원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나해 이어 올해도 자체 계획한 이번 민원서비스는 한창 바쁜 농가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계화면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업무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 민원처리 신청 및 발급 사무이며 하반기 영농철에는 팩스민원에 대한 유선신청 서비스도 고려해 면민들을 위한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계화면은 남은 농번기 기간 면민들이 더욱 편리한 행정업무를 누릴 수 있도록 조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민원실에 홍보 안내문을 게시해 모든 면민들이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보건소  
다음달 3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무료 건강 검진

정읍시 보건소가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08:00~11:00) 보건소 내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검진 대상은 40세 미만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와 지난해 수검자 중 의미 있는 증상이 있는 자이다.

검진 항목은 기초검사(19항목)와 자궁 경부암, 갑상선 기능검사이다. 검

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개별통보 된다.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